

# “종교차별 정책 중단 하라”

## 전국사찰서 민족문화수호법회... 관변단체 조계사서 난동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족 문화를 푸대접하고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사찰에서는 12월 22일 정부의 민족문화보호 외면 정책과 종교편향 자행을 규탄하는 민족문화수호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족 문화를 푸대접하고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계사에 모인 3000여 사부대중에게 민족문화 수호를 위해 마음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오늘 동지 법회가 위기에 처한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해 죽비를 내리는 의미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 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종교차별 정책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종교차별 정책 중단을 결의했다.

종단 관계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족문화 보전정책을 마치 특정 종교에 선심을 베푸는 식의 천박한 인식을 바로잡을 때까지 정진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한편, 규탄법회가 봉행된 조계사에서는 라이트 코리아, 고엽제전우회 녹색국민연합 등 자신을 친정부 관변단체 소속이라 밝힌 50~60대 남성 20명이 난입해 신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탁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 그들은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조계종과 스님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조계사는 “정부가 관변단체를 동원해 불교를 폄훼하고 있다”며 정부를 배후로 지목하고 나섰다.

조계사(주지 토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신도들의 신생활을 방해 말고 신도를 불안케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사는 “조계종은 현 정부와의 마찰을 단지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자 108배 정진을 해왔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친정부 관변단체까지 동원해 불교계를 폄훼해 또 하나의 국민 분열을 일태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조동섭·천진영 기자



12월 22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민족문화수호법회(위)와 동시에 조계사 앞에서 열린 친정부 관변단체의 기자회견을 방자한 대 조계종 항의의 시위 모습.

### 불교보다 가톨릭 더 신뢰

#### 개신교 단체 조사... 불자의 불교 신뢰 69.9%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교보다 가톨릭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자들도 불교 다음으로 가톨릭을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월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윤실이 11월 8~18일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실시했다.

응답자 중 41.4%가 가톨릭교회를 신뢰한다고 밝혔고, 불교는 33.5%, 개신교회는 20.0%로 나타났다. 2009년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종교기관인 가톨릭, 개신교, 불교 순이었으나 올해는 가톨릭, 불교, 개신교 순서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7.6%, 불신한다는 응답은 48.4%로 조사됐다. 특히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개신교인 중에서도 16.8%의 비율을 보였다. 비개신교인의 신뢰도는 8.2% 수준에 그쳤다.

개신교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은 불교 신자와 무종교인들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불자와 무종교인들은 각각 34.6%와 32.8%가 2~3년 전보다 개신교를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민단체, 언론, 정부, 사법부, 개신교회, 국회 중 종교별로 가장 신뢰하는 기관에 대해 불자들은 시민단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톨릭 신도 역시 시민단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신교인들은 47.5%가 개신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는 불교와 가톨릭에서는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불교는 60대 이상에서, 가톨릭은 60대 미만에서 가장 많은 신뢰를 받았다. 박기범 기자

### 교회만 불렀다

지식경제부가 소망교회 등 개신교 교회만을 대상으로 방송장비 교체 공청회를 열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2월 22일 팔레스 호텔에서 ‘방송장비 종교계 확산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순복음교회, 은누리교회, 소망교회 등 기독교 측만 참석했다. 당초 지식경제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교회 부문 방송장비 고도화를 위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라고 명시돼 있다.

같은 날,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형편 예산, 여사님 예산도 모자라 이제는 이명박 장로님 예산까지 챙기겠다는 것이냐”며 지식경제부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대학 등 방송장비 수요자 의견 수렴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해명했다. 박기범 기자

### 경찰도 불교 폄훼?

경찰이 최근 범어사 출신 스님의 입적과 천왕문 화재사건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와 범어사가 사건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불청은 12월 22일 “범어사 출신 스님 사망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찰의 추측성 발표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일 강원도 속초에서 범어사 출신 스님이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되자 화재사건과의 관련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불청이 본질 왜곡이라고 항의했다. 조사 결과 강원도에서 입적한 스님은 천왕문 화재 당시 마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어사도 22일 부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이번 사태로 범어사와 조계종 스님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항의했다. 박기범 기자

### “정책의 죽비 높이 들겠다”

#### 조계종 중앙종회, 연석회의 후 성명 발표

정부·여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와 관련한 불교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12월 21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 고통을 안겨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태에 한마음으로 경제의 죽비를 높이 들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는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

졸속 예산 철회 △불교 자주권 침해하는 국가법령 폐지 △정부·여당의 참회를 촉구했다.

20일,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도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 및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기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종단협, ‘기자 조선’ 망언 유감

#### 민족문화수호 성명서 등도 채택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올해 중국에서 열린 ‘제1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중국대회’의 중국측 학생 스님 망언에 대해 다시 한 번 한국 불교계의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종단협은 1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10월 중국 무석 법궁에서 진행된 한중일 중국대회에서 학생 스님

은 기조연설에서 “기자 조선은 중국 사람이 세운 한반도 최초의 왕국이며 문화를 전파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단협은 2011년도 예산을 7억362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정부의 사과와 중요(혐오)범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조선왕실의궤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박기범 기자

### 안상수 “명진 스님 친분? 억울”

#### 사과해 놓고 “스님들 다 기억 못해 탄소리”

봉은사 사태의 발단이 된 ‘좌파 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뉴스앤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안 대표는 중증장애아동시설인 용산 후암동 ‘영락에나이의 집’을 방문 후 동행한 취재기자 3명과 함께 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내가 명진 스님 때도 참 억울했다. 3년 전 식사한 것도 사실 20여 명 넘는 스님, 이렇듯 명진, 도법, 무슨 다 비슷하지 않나”라며 “그런 스님을 다 어떻게 기억하나? 내가 그 때문에 참 억울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자승 스님 이슬람사원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2월 23일 서울 한남동 한국이슬람교중앙회를 방문했다. 조계종단 대표로는 이슬람사원을 처음 찾은 자승 스님은 이주화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맘을 만나 공동선 실천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조동섭 기자

虎踞山 雲門寺 2011년도 운문사

## 승가대학 ·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 운문사승가대학

자 격 : 사미니계 수지자, 타 승가대학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모집인원 : 사미니과 00명  
시험과목 :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은사스님 추천서  
본인 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건강진단서, 최종학력 증명서  
법명도장 및 증명사진(장삼.만의착용) 2매  
준 비 물 : 만의,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동방야, 세면도구  
도착일시 : 2011년 1월 22일 오후 4시까지  
시험일시 : 2011년 1월 23일 오전 7시  
문 의 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054)372-88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 보 현 율 원

자 격 :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비구니  
모집인원 : 10명 이하  
특 전 : 졸업 후 조교수 자격부여,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원  
시험과목 : 면접 및 구술  
제출서류 : 수행이력서(본 율원 소정양식) 1통  
종단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은사스님 및 강주스님 추천서  
승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초본  
건강진단서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증명사진(가사.장삼착용) 2매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시험일시 : 2011년 1월 23일 오후 2시  
문 의 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054)372-88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 한문 불 전 승 가 대 학 원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개원〉  
전문적으로 부처님경전을 다시 수확하고 싶은 대학원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자 격 :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비구니 00명  
특 전 : 졸업 후 조교수 자격부여,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원  
시험과목 : 면접 및 구술  
제출서류 : 행이력서(율원동일) 1통  
종단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은사스님 및 강주스님 추천서  
승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초본  
건강진단서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증명사진(가사.장삼착용) 2매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시험일시 : 2011년 1월 23일 오후 2시  
문 의 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054)372-88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